

## 지역재생과 요괴 문화의 현대적 활용\*

### - 옷카이치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 경 희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요괴 문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에현 옷카이치시 사례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옷카이치시는 환경오염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문화 전승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해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전통문화 마쓰리를 활용하여 문화 전승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와 더불어 공해 문제가 과거의 일로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고통의 유산을 기억하려는 움직임 또한 확인된다.

둘째는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진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보존 계승하며 현대적 대중문화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다. 시민 축제로 자리 잡은 다이웃카이치 마쓰리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에 맞추어진 '만들어진 전통'이다.

셋째는 이러한 지역재생에 요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다. 요괴 문화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와 풍부한 이야기 만들기가 가능하다. 캐릭터가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의 매체로서 가능하며, 요괴라는 소재를 통해서 멋지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미디어 믹스가 시도되고 있는 점을 통해 일본문화가 가진 이야기의 다양성, 매체 전환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는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참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47026)

어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참여하도록 이끈 점들은 옫카이치가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 격차 등으로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쇠퇴해져 간다. 그러한 지역의 재생과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점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해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옫카이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주제어 : 지역재생, 요괴 문화, 유류카라, 마을만들기, 옫카이치

## 1. 머리말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의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sup>1)</sup>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재생의 방안들이 모색되면서, 지역이 가진 문화적 소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민간과 정부가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가진 잠재력과 역동성을 이끌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에 효과적이며,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도 연계될 수 있다.

지역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미국의 문화 사회학자 웬디 그리스월드(Wendy Griswold)는 문화예술의 표상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

1)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증가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23년 4월 26일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50년 후에는 총인구가 현재의 약 70%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급감 및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세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미치는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문화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sup>2)</sup>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구현된 문화예술 표상체가 사회에 널리 수용되기 위해서는 문화 표상체(Cultural Object), 문화 생산자(Producer), 사회 구조(Social World), 문화 수용자(Receiver)의 4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현된 문화표상체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문화 표상체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와 문화 표상체를 경험하는 수용자 간의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지역의 특성을 담은 마스크트 캐릭터에 적용해 보면, 문화 제작자에 의해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의 지역성과 역사성의 특수성이 투영되고 그 지역의 수용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는 지역과 연관된 문화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사물·정보의 이동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균질화되고 표준화되어 갈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어딘가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한 욕망은 연속되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새로운 지역의 가치로 이어진다. 지역의 가치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면면히 이어져 온 지역의 역사와 속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진 고유한 것이 모티브가 된다. 글로벌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차별성을 찾아 다양한 로컬리티를 담은 매력적인 문화 표상체로 구현된 캐릭터를 통해 인간은 지역과 연결이 된다. 그런 이유로 지역의 캐릭터<sup>3)</sup>를 만나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2) 웬디 그리스월드(1986)가 ‘문화 다이아몬드’ 이론을 고안한 이후 빅토리아 알렉산더(Victoria D. Alexander 2003)에 의해 ‘보완된 문화 다이아몬드’가 제시되었다. 알렉산더는 문화표상체가 생산자로부터 그것을 소비하는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조직, 혹은 네트워크에 의해 분배된다고 봄으로써 4가지 요소 중앙에 분배를 위치시켰다.

3) 일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캐릭터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캐릭터’라는 의미의 ‘유류카라(ゆるキャラ)’로 불리는 지역캐릭터는 힘들고 바쁜 현대인들이 어딘가 부족하고 느슨해 보이는

지역의 음식을 먹으며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sup>4)</sup>

본 논문에서는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여 이미지 향상을 이끈 사례로서, 요괴 문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에현(三重県) 오키아이치시(四日市市)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키아이치시는 공해로 인한 천식 증상의 수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환경오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전승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지역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의 유입을 꾀하고 있다. 공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공해의 위험과 피해의 희생을 과거의 일로만 여기며 역사 속 사건으로 사라지는 것을 비판하여 그때의 기억을 후세에 전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澤井余志郎 2012).<sup>5)</sup>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상반되긴 하지만, 양쪽 모두가 오키아이치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오키아이치의 지역재생에는 그러한 면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

캐릭터를 통해 일상에서 웃음과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역발상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모티브가 되었다. 유루카라는 유명 만화가이자 뮤지션인 미우라 준(三浦純)에 의해 2004년에 상표로 등록되면서 지자체와 기업 등에 의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미우라 준은 유루카라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향토애가 넘치는 강력한 스토리를 가질 것, 둘째, 몸동작이나 행동하는 모습이 불안정하거나 유니크할 것, 셋째는 사랑스러운 느슨함을 가져야 할 것 등이다. 지역 홍보를 위한 공공 캐릭터인 만큼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전설, 유명한 동물이 캐릭터로 만들어진다(犬山秋彦·杉元政光 2012 참조).

- 4) 지역 고유의 문화, 역사 등 문화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이끄는 것은 일본부흥전략(日本再興戰略 2016)에서 언급된 바 있다.
- 5) 사와이 요시로(1928-2015)는 오키아이치의 공해 피해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 해온 활동가이다. 공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 공해의 과정을 기록했다. “공해의 실태는 몇 ppm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피해자인 환자, 주민의 생각, 실제 상황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2012:76)라는 그의 이야기는 공해 실태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미래에 계승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요괴 문화는 축적된 요괴 연구를 통하여 일본 대중문화 가운데 요괴가 친숙한 이미지로 캐릭터화되어 만화, 애니메이션,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부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sup>7)</sup> 일본의 요괴문화와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가가와 마사노부(香川雅信)를 중심으로 하는 요괴연구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요괴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한 사례로는 돗토리현(鳥取県)의 사카이미나토시(境港市)<sup>8)</sup>와 후쿠사키정(福崎町)의 사례연구<sup>9)</sup> 등에 그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고에서 주목하는 옷카이치시의 사례에서는 요괴 문화를 활용한

- 6) 대표적으로 일본 요괴 연구의 권위자인 고마쓰 가즈히코(2015 등)의 연구가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정신구조 가운데 요괴라는 존재가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떠한 존재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가가와 마사노부(2005)에 따르면, 백귀야행 에미키를 만들어낸 것은 중세적인 모노가타리(物語)의 세계지만, 현존하는 백귀야행 에미키의 대부분이 근세 시대에 그려지고 향유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도시대에는 요괴라는 존재를 공포나 경외의 대상이기보다는 오락의 대상으로 여겼기에, 눈으로 보고 즐기는 ‘회화’로서 근세인들에게 수용된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요괴에 대한 논저로는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 편(2005), 박전열·임찬수 외(2014) 등을 들 수 있다.
- 7) 요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는 이치카와 히로야(市川寛也 2014)가 대표적이다. 이치카와는 요괴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시대에 따라 시각적인 콘텐츠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 생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유연성에서 민중의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봤다.
- 8)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의 요괴 문화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황민우(2012), 이혁진·최성환(2013), 정선주(2019), 정의홍(2020) 등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 9) 김용의(2016)는 일본 지자체의 요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에 주목하여 효고현 후쿠사키초가 요괴 전승을 접목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지역재생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과거 공해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요괴 문화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은 유사한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가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꾀하려는 사례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옷카이치시의 변모-환경오염 도시에서 문화 전승의 공간으로

미에현 옷카이치시는 일본 4대 공해병<sup>10)</sup>으로 불리는 심각한 공해 문제 발생으로 환경오염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거기에는 1950년대 이후 당시 일본이 전후의 부흥기를 거쳐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고 있었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배경 아래 전국 각지에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면서 공장 주변에서 각종 공해가 발생한 배경이 있다.

옷카이치시에서는 1959년부터 ‘옷카이치 콤비나트(四日市コンビナート)’라 불리는 석유화학 공장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에 들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호흡기 계통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 1960년 8월 ‘옷카이치시 공해 방지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1962년 공해 방지 대책 위원회에 의한 조사 결과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연기 배출 규제에 관한 법률(연기 규제법)」이 공포되고, 「옷카이치 지구 대기오염 대책 협의회」가 설립된다. 이를 계기로 대기오염과 천식 환자의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민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다.

---

10)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水俣病)과 메틸수은 오염으로 인한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역의 니가타 미나마타병(新潟水俣病), 카드뮴중독인 이타이이타이병(イタイイタイ病)과 더불어 유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옷카이치 천식병(四日市ぜんそく)이 일본의 4대 공해병으로 불린다.

그러다 1964년에 처음으로 공해로 인한 폐기종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오키아이치는 1965년에 전국에 앞서서 공해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공비 부담 제도를 실시하고, 1967년에는 이소즈(磯津)의 환자 9명이 6개 회사를 상대로 쓰(津) 지방재판소 오키아이치 지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하면서 오키아이치 공해 소송이 시작된다. 결국 1972년 오키아이치 석유화학 공단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급성천식, 폐기종 등의 질병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밝혀지면서 환자들이 승소하게 되었다. 당시 법원은 기업 측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공해병 발생을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75년까지 1,140명의 오키아이치 석유화학 공단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공해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이후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하나가 되어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1976년에는 천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황 농도가 도시 전역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 1990년에는 환경 개선 과정에서 축적된 산업공해 방지 관련 기술과 지식을 외국에 전수하고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미에현 및 주부(中部) 경제계와 연계하여 민관 합계 62억 엔을 투자한 ‘국제환경기술이전센터(ICETT)’를 설립하였다.<sup>11)</sup> 2015년에는 오키아이치 공해의 역사와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환경 개선의 노력과 함께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양립하는 도시 만들기와 공해 문제를 극복한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환경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오키아이치 공해와 환경미래관(四日市公害と環境未来館)’을 개관하였다. 전시 구역, 학습 구역, 활동 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오키아이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료관이다. 특히 오키아이치 공해를 경험한 시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sup>12)</sup>에 의한

11) 2017년 3월 말까지 중국 615명, 인도네시아 317명 등 91개국 2,579명의 연수 생교육이 진행되었다(四日市市役所広報 2017 참조).

12) 당시 시민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나 교육 관계자 및 당시의 사정을 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다.

가타리베(語り部) 활동<sup>13)</sup>을 통해 옷카이치 공해 문제로부터 얻은 교훈을 계승해 가고자 힘쓰고 있다.

한편, 역사적으로 옷카이치는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8)에 막부의 거점인 에도(현재의 도쿄)와 천황이 있던 교토(京都)를 잇는 도로인 ‘도카이도(東海道)’의 43번째 역참(宿場) 마을로 번성했다. 다이묘(大名) 행렬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이 에도와 지방 영지를 오갈 때 들리는 곳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에는 음식과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그 중 도미타(富田)와 히나가(日永) 지역은 역참과 역참 사이에 설치된 곳으로 도미다는 명물 대합구이(焼蛤)가 인기였고, 히나는 도카이도와 이세신궁(伊勢神宮) 길의 분기점으로 이세를 참배한 사람들이 기념품을 구입하던 곳으로 북적였다.<sup>14)</sup>

또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전통 축제가 행해지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옷카이치 마쓰리(四日市祭)’와 ‘다이옷카이치 마쓰리(大四日市まつり)’를 손꼽는다. ‘옷카이치 마쓰리’는 약 240년 전,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스와신사(諏訪神社)의 연례 제사로, 제례 행렬에 등장했던 것이 미에현 지정 유형 민속문화재인 ‘구지라부네 수레(鯨船山車)’, ‘오뉴도 수레(大入道山車, 오뉴도 인형을 태운 수레)’ 등이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6월 18일 옷카이치 공습으로 많은 것이 소실되었고, 현재는 매년 8월에 실시하는 ‘다이옷카이치 마쓰리’에 그 일부가 남아 있다.

‘다이옷카이치 마쓰리’는 1958년에 그때까지 옷카이치에서 열리던 ‘항구 마쓰리(港まつり)’, ‘칠석 마쓰리(七夕まつり)’, ‘상품 마쓰리(商品祭)’의 축제가 ‘옷카이치항구 마쓰리(四日市港まつり)’로 통합되면서 1964년에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시민 축제 마쓰리로서 시작되었다. 옷

---

13) ‘옷카이치 공해와 환경미래관’ 홈페이지에 옷카이치 공해 사건과 피해에 관한 가타리베(吉田克己氏(1923~2016), 野田之一氏(1931~2019), 澤井余志郎氏(1928~2015)의 증언 영상, NHK 아카이브, DVD 영상 등이 공개되어 있다.

14) 미에현 옷카이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미에현교육위원회(三重県教育委員会 2010) 발간 자료를 참고하였다.

카이치시의 제정 기념일인 8월 1일부터 옷카이치항구 개항 기념일인 8월 4일까지를 개최 기간으로 하였다.

옷카이치시는 ‘사람과 문화와 자연을 키우는 활기찬 항구도시 옷카이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에 ‘제1회 오사카 옷카이치 축제 등의 방향을 생각하는 시민회의’를 열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다이옷카이치 마쓰리’를 개최하여 밝고 문화적인 산업도시 옷카이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민회의에서는 ‘도시의 브랜드력을 높여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축제로 만들자’, ‘공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자’, ‘출연자와 보는 자가 모두 축제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졌다(大四日市まつり実行委員会議事録 2004).

한편, 행정과 시민과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4월에는 재단법인 옷카이치시 마을만들기 진흥사업단(시 100% 출자)을 설립했다. 이후 미에현 지사로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2013년 4월 1일에 ‘공익재단법인 옷카이치시 문화마을만들기 재단’으로 재출범하였다. 시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국제교류의 진흥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시설의 관리, 도시환경의 유지보전, 옷카이치시와 시민 등이 연계한 도시 조성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옷카이치시는 심각한 환경오염 도시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공해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고, 거기서 나아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 전승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요괴 문화의 현대적 활용과 미디어 믹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옷카이치시의 전통문화 활용 사례에는 크게 마쓰리를 들 수 있다. 지역 전승과 관련한 다양한 마쓰리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마쓰리에 거대한 오뉴도를 태운 수레가 등장하는 점이 최대의 하이라이트이다. 그리고, 지역을 홍보하는 고토치캐릭터(ご当地キャラ)<sup>15)</sup> 고뉴도군(こにゅうどうくん)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고뉴도군을 의인화한 소년 캐릭터 도리코지로(道入小四朗)를 주인공으로 한 학원만화를 제작하여 무료로 연재하고, 라디오 드라마, 춤과 연극의 2.5차원 무대 등 다양한 미디어 믹스로도 진행 중이다.

## 1. 오뉴도

거대한 크기의 오뉴도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목 길이 2.7m, 전체 높이 9m의 일본에서 가장 큰 가라쿠리 인형이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인해 오뉴도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규모의 장치 설비로 인해 인력과 높은 비용으로 8월의 ‘다이웃카이치 마쓰리’와 10월의 ‘웃카이치 마쓰리’의 두 번 축제에만 등장하고 있다.

원래 오뉴도는 웃카이치 스와신사의 제례에 동원되는 많은 수레와 제물 중 하나였다.<sup>16)</sup> 스와신사 제례 때 행해지는 웃카이치 마쓰리는 에

---

15) ‘유루카라’와 ‘고토치 캐릭터’는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하면, ‘유루카라’는 일본 도부현의 유명한 특산물이나 지역의 특색을 의인화하여 사람이 들어간 형태의 인형 캐릭터를 가리킨다. 지역의 홍보와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기업의 PR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다. 유루카라의 가장 큰 특징은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어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토치 캐릭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헌과 자료에서 유루카라와 같은 용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용어의 한 자가 보여주듯이 해당 지자체의 홍보를 위해 활용되는 캐릭터를 가리킨다. 유루카라에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가 제작한 캐릭터도 포함되는 점에서 유루카라라는 커다란 범주 가운데 고토치 캐릭터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6) 오뉴도의 유래와 전승에 관한 내용은 웃카이치시교육위원회(四日市市教育委員会) 사회교육과 학예원이자 고가쿠칸대학연구개발센터(皇學館大学研究開発センター) 공동연구원인 호리코시 미쓰노부(堀越光信 2019)의 글에 의하고 있다.

도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도카이도 명소도회(東海道名所図会)』(1797년 간행)에 ‘예제(例祭) 7월 27일, 제례악차와 수레 행렬이 있고, 인근 군중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는 신사 제례이다(例祭七月廿七日、祭式の楽車、練物あり、近隣群詣して、賑しき神事也)’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이미 18세기 말에 꽤 대규모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오뉴도의 기모노를 담은 상자 측면에 ‘1812년 7월 길일(文化九年(1812)七月吉日)’이라는 기재가 있고, 깃발(幟)을 넣어두는 상자 뒷개에 ‘文化十年(181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무렵 옷카이치 축제에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리코시 미쓰노부의 조사에 따르면, 오뉴도는 1805년에 나고야의 가라쿠리 인형 제작자인 다케다 주사부로(竹田寿三郎)·후지요시(藤吉) 부자(父子)가 만든 것이 최초로, 이때의 인형은 목에 도르래만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들 뿐 구부러지지 않는었다. 그 후 1869년에 아사노 신스케(浅野新助)에 의해 목이 구부러지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에도 시대의 오뉴도는 목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모양이었고, 메이지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목을 S자 모양으로 구부리는 것이 가능했다.<sup>17)</sup>

오뉴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전승이 있다. 하나는 오케노마치(桶之町)<sup>18)</sup> 간장 집 창고에 늙은 너구리가 들어와 살면서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위협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너구리를 쫓아내려고 오뉴도 요괴 인형을 만들어 겁을 주었지만, 너구리는 오뉴도 인형보다 더 크게 둔갑하더니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은 오뉴도 인형의 목에 늘어나는 장치를 만들어 목을 길게 늘어뜨려 보였다. 그러자 이에 놀란 너구리는 행복하고 도망갔다

17) 실제로 1869년의 목이 현존하는데, 자유롭게 목을 굽혔다 펴거나 구부린 목을 쳐드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37년의 목과 1997년의 목도 보관되어 있다(호리코시 미쓰노부 2019).

18) 옛날 오케노마치(桶之町) 마을 사람들이 옷카이치 마쓰리에서 ‘오케’에 ‘大化(オバケ)’라는 글자를 붙이고 요괴 가장행렬을 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레에는 요괴나 귀신을 연상시키는 조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大四日市まつり 홈페이지).

는 이야기다.

또 다른 이야기는 옷 가게를 하는 규로쿠(久六)에게 키가 6척이나 되는 큰 청년이 찾아와 일자리를 얻고 싶다고 간청했다. 주인인 규로쿠는 간절히 부탁하는 청년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 고용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사흘, 열흘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규로쿠의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고, 키 큰 남자의 장사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옷감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 규로쿠의 가게는 동네에서 평판 좋은 큰 가게로 번성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저녁 무렵, 마당에 나간 규로쿠가 장지문에 큰 그림자가 비쳐 들여다보니, 그 키 큰 남자가 목을 쪽 빼서 등잔불의 기름을 훔고 있었다. 이를 보고 놀란 규로쿠는 그만 기절하였고, 다음날 깨어보니 그 큰 남자는 사라졌다는 전형적인 로쿠로쿠비(ろくろく首) 이야기이다.<sup>19)</sup> 어느 쪽 유래가 더 맞는지는 판단이 분분하지만, 양쪽 이야기 모두 현재 오뉴도의 모습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전승으로 추측되는 점이 있다(堀越, 2019).

지역의 전승 속에 내려오는 요괴의 이야기는 현대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뉴도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의 주뉴도(申入道)가 옷카이치 상점가에 존재한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있다. 일 년에 두 번 밖에 볼 수 없는 오뉴도에 비해, 큰 아케이드 거리에 서 있는 주뉴도는 매우 인기가 높아 상점가의 심볼이 되었다. 주뉴도는 목에 모터를 달았기에 늘었다 줄였다 하는 동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뉴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하다. 50여 년 전 당시 스와신미치(諏訪新道) 거리에 있던 혼수품 가게의 간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시에 기증하여 시립박물관에 보관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상가에 놓아두게 되었다. 주뉴도는 오뉴도와 닮은 모습으로 오뉴도의 동생이자 옷카이치시 마스코트 캐

19) 로쿠로쿠비는 일본 전승에 등장하는 요괴의 일종이다. 에도시대에는 손님과 동침한 유녀가 손님이 잠든 사이에 목을 쪽 빼어 등잔불의 기름을 훔는다는 괴담이 유행했다.

릭터인 ‘고뉴도군’의 삼촌이라는 설정으로,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있다.



[그림1] 주뉴도와 인스타 사진액자



[그림2] 주뉴도를 소재로 한 종이그림연극

현재는 스와사카에마치(諏訪栄町)의 그린몰 상가에 있는 조림 반찬 가게인 ‘가이마스(貝増)’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상이 노후되어 현립옷카 이치농예고교(県立四日市農芸高校) 생활문화과(生活文化科) 복식경영 코스의 3학년 학생들에게 의상 제작을 의뢰했다. 계절별로 4종류의 의상이 완성되자 주뉴도와의 새로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미에현에 사는 개그맨이자 나고야 요시모토 소속의 만담 콤비 ‘오렌지’의 다나카 데쓰야(田中哲也)가 상가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 ‘어린이 옷카이치’를 주최하는 고바야시 씨에게 인스타풍의 액자 제작을 의뢰했다[그림1].<sup>20)</sup> 또한, 주뉴도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종이연극’을 만들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그림2].<sup>21)</sup>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알고 애착을 가지면서 상가를 찾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20)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 Yokkaichi(2021.7.9.)  
<https://www.you-yokkaichi.com/2021/07/09/14110/> 2024.12.10.)

21) 이러한 활동은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다. (伊勢新聞(2024.7.29.)  
<https://www.isenp.co.jp/2024/07/29/114149/> 2024.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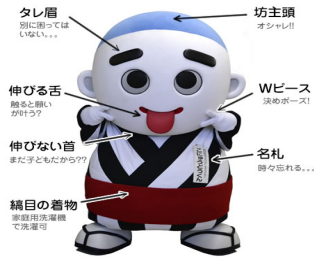
## 2. 고뉴도군

유타카이치시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고뉴도군은 유타카이치市 지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1997년에 탄생하여 시를 홍보하는 각종 이벤트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유타카이치의 요괴 오뉴도[그림3]의 아들이라는 설정으로 아버지와 같이 하얀 얼굴에 큰 눈, 긴 혀를 짹짹 늘어뜨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4]. 아빠처럼 목을 쪽 뺏거나 눈알을 굴리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잘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면서 고뉴도군의 길게 뺏은 혀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고뉴도군은 아빠를 아주 좋아해서 언젠가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지만, 1년에 두 번밖에 만날 수 없기에 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상점가에 있는 주뉴도가 삼촌이라는 설정이므로 자주 만나고 있다.



[그림3] 고뉴도군의 아빠 오뉴도<sup>22)</sup>

### 四日市市公式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 こにゅうどうくん



[그림4] 오뉴도의 아들 고뉴도군<sup>23)</sup>

고뉴도군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자주 시정 활동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미에현뿐만 아니라

22) 고뉴도군 홈페이지 <https://konyudokun.net/about/> 참조.

23) 고뉴도군 홈페이지 <https://konyudokun.net/about/> 참조.

외부에서도 인기를 얻어 2017년 ‘전국 유루카라그랑프리’<sup>24)</sup>에서 4위, 2018년에는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2018년 여름에는 도쿄의 메이지진구 가이엔(東京神宮外苑)에서 행해진 「후낫시 PRESENTS 고토치 캐릭터 페스티벌」에 등장하기도 하고, 2019년에는 사이타마현(埼玉県) 하뉴시(羽生市)에서 열린 ‘세계 캐릭터 서밋 in 하뉴’에서 모로헤이야 잇을 머리에 쓰고 ‘무지나몬’(사이타마현 하뉴시) 버전으로 춤추는 모습이 보도됐다. 1997년 제작 당시에는 만년 6살로 설정되었지만, 인기에 힘입어 2018년 1월 20일에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성인식을 치르기도 했다.

### 3. 도리코지로(道入小四郎)

옷카이치시 지역캐릭터 ‘고뉴도군’을 의인화한 소년 캐릭터이다. 주인공 도리코지로(道入小四郎)는 ‘밝은 옷카이치의 고뉴도(朗らかな四日市の小入道)’를 거꾸로 읽은 이름으로, 2021년도에 제작된 뮤직비디오 ‘SUNRIZE!43~고뉴도군의 테마 송’<sup>25)</sup>에도 등장하는 꽃미남이다. 도리코지로 캐릭터의 활용 전개를 보면, 우선 도리코지로를 주인공으로 한 학원만화 『요×학원 어스타운드!!!!(妖×学園 アスタウンド!!!!)』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요괴와 인간과의 트러블을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로, 만화는 종합학원 휴먼 아카데미 나고야교(総合学園 ヒューマンアカデミー名古屋校)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가와시타 하루

24) 2011년에 제1회가 개최된 ‘유루카라 그랑프리’는 온라인의 인기투표와 오프라인 축제로 치러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캐릭터의 참가수와 투표 인원수가 증가하였다.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공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광산업을 일으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일본 지자체들이 지역의 유루카라에 과열되는 부정적인 면도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제10회를 마지막으로 10년간 진행되어 온 ‘유루카라 그랑프리’가 막을 내리고, 이후로는 지역캐릭터의 다양한 활동과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활용이 전개되고 있다.

25) SUNRIZE!43의 ‘43’은 ‘4(옷카이치시) 3(미에현)’이라는 의미로, ‘옷카이치시가 도카이도의 43번째 역참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かわしたハル)’씨와 학생들이 담당하였다.

다음으로는 만화『요×학원 어스타운드!!!!』를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하여 도카이 라디오(東海ラジオ)의 윗카이치시 프로그램 ‘1·2·3 윗카이치 메가 리전! Go!(1·2·3四日市メガリジョン!!Go!)’에서 총 5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제작에는 유명 배우 교모토 마사키(京本政樹)와 미에현 출신의 가수 아베 시즈에(あべ静江)가 성우로 출연하였다. 또한 2.5차원 무대로서 나고야 소극장계에서 최다 관객 동원을 자랑하는 ‘극단 아오키리미칸(劇団あおきりみかん)’의 주재로 극작가 가노메 유키(鹿目由紀) 각본·연출에 미에 고등학교 무용부 학생들이 출연하여 무대화되었다. 이렇듯 일본의 미디어 믹스를 통해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캐릭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윗카이치시는 애니메이션, 댄스, 만화 등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문화를 통해 ‘콤비나트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윗카이치의 이미지를 발신하고 있다.

#### IV. 지역과의 연계, 주민 참여 활성화

윗카이치시의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에서는 지역 교육 기관과의 연계, 주민 참여의 활동 등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물론 거기에는 요괴 캐릭터가 등장하는 주요 무대가 마쓰리라는 시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일본의 마쓰리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일본의 전통 축제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참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에서는 마쓰리를 계승해 나갈 청년들조차 세우기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윗카이치의 마쓰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다이윗카이치 마쓰리’의 기획검토위원회 위원장 가와키타 에쓰오(川北悦男)는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한다. “마쓰리를 이어가는 것도 ‘사람’이고, 마쓰리를 끝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키울 것인가’가 앞으로 마쓰리를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개항 120주년을 맞아 항구 마쓰리가 지토세마치(千歳町)에서 개최되므로 다이웃카이치 마쓰리 장소와 항구 마쓰리 장소가 하나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기를 띠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이웃카이치 마쓰리가 될 것입니다.”(四日市市役所広報 2019:3)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윗카이치시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정 활동뿐만 아니라 다이웃카마쓰리를 위해서 시민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매년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개하고 있는 활동들은 주목되는 점들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례들도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고뉴도군이 아빠 오뉴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스토리를 활용하여 오뉴도 장비를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2020년 1월 12일 윗카이치시에서 개최하는 ‘고토치 캐릭터 감사제’에 고뉴도군의 자랑인 아빠를 불러서 공개하자는 내용의 기획이었다. 그러나 고뉴도의 아빠인 오뉴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공연장인 윗카이치 돔까지의 운반비,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상과 부품의 유지보수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 오뉴도를 지역캐릭터 이벤트에 초대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집(2019년 11월 15일~2020년 1월 10일, 57일간)한 것이다. 이때, 목표 금액(100만엔)을 달성(110.3%)하는 등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또한, 앞에서 언급한 현지 고등학교 무용부 동아리 학생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윗카이치대학(四日市大学) 종합정책학부의 지역·마을만들기 분야 전공교육 과목으로 개설된 「도시제레론」과 「축제와

26) <https://www.furusato-tax.jp/gcf/705?srsId=AfmBOooKlnkYd9eMYfiMAyMvArWuZ2GDXXEyXToqGEPuZgMuwdkmPOV> 참조.

마을만들기」 수업에서 수강생 전원이 실제로 8월에 행해진 마쓰리의 오뉴도 수레 행렬에 실습으로 참가하는 등 지역과의 연계에 힘쓰고 있다.<sup>27)</sup>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 시민들의 응원과 더불어 보존회와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 윗카이치시의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윗카이치시는 환경오염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문화 전승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공해 문제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공해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전통문화 마쓰리를 활용하여 문화 전승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와 더불어 공해 문제가 과거의 일로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고통의 유산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공해 문제가 과거의 일로 정리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세에 물려주는 활동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남겨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이다.

둘째는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진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보존 계승하면서 그러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대중문화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

27) 四日市大学総合政策学部ニュース(2024.07.01.)

<https://www.seisaku.yokkaichi-u.ac.jp/2024/07/21/20240721/> 참조.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윗카이치 마쓰리는 에도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스와신사의 전통 마쓰리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이자 민속문화이다. 그리고 전통 마쓰리와 지역의 다양한 마쓰리들을 통합하여 만든 다이웃카이치 마쓰리가 시민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다이웃카이치 마쓰리는 전통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통문화의 요소를 수용하여 현대에 만들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에 맞추어진 ‘만들어진 전통’인 셈이다.

셋째는 이러한 지역재생에 요괴 문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이다. 요괴 문화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와 풍부한 이야기 만들기가 가능하다. 또한,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의 매체로서 캐릭터가 기능하고 있으며, 요괴라는 소재를 통해서 멋지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승으로 전해져 오는 기괴한 요괴 오뉴도를 인간들의 마쓰리에 지속적으로 등장시키며, 유루카라 고뉴도를 제작하여 오뉴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설정은 인간과 캐릭터를 연결하고 캐릭터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문화가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의 미디어 믹스가 시도되고 있다. 마쓰리의 수레를 타고 등장하는 거대한 가라쿠리 인형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유루카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만화, 애니메이션의 서브컬처로 탄생하며, 그리고 2.5차원 뮤지컬로 진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문화가 가진 이야기의 다양성, 매체 전환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는 요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보통 지역캐릭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일은 더 더욱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마쓰리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행사는 당장에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쓰리

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참여하도록 이끈 점들은 윗카이치가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 격차 등으로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쇠퇴해져 간다. 그러한 지역의 재생과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점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해 구성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윗카이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선희(1997), 「환경보전도시를 탈바꿈하는 일본 四日市(윗카이치)市」, 『도시문제』 32(338), 87-90.
- 김용의(2016), 「일본의 요괴전승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효고현 후쿠사키정의 사례」, 『일어일문학연구』 99, 한국일어일문학학회, 3-18.
- 빅토리아 D. 알렉산더 지음, 한준 외 옮김(2018), 『예술사회학 Sociology of the Arts』, 살림.
- 青木貞茂(2004), 『キャラクター・パワー ゆるキャラから国家ブランディングまで』, NHK出版.
- 磯貝政弘(2012), 「ご当地キャラクターによる地域活性化」, 『月刊地域づくり』 第278号, 32.
- 市川寛也(2014), 『妖怪文化の現代的活用に関する研究：地域住民を主体とする妖怪存在の再創造の事例から』, 筑波大学博士論文.
- 犬山秋彦・杉元政光(2012), 『ゆるキャラ論』, 보이저.
- 大四日市まつり実行委員会事務局(2004), 「第1回大四日市まつりなどのあり方を考える市民会議」, 議事録, 1-3.
- 小田切博(2010), 『キャラクターとは何か』, ちくま新書.
- 香川雅信(2005), 『江戸の妖怪革命』, 河出書房新社.
- 神長唯(2023), 「大学における「四日市公害と環境未来館」の活用 公害資料館が地域にもたらす相乗効果」, 『日本の科学者』 58, 11-16.
- 鴨川武文・田中真央(2019), 「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と地域」, 『福岡大学人文論叢』 51(3), 615-631.
- 澤井余志郎(2012), 『ガリ切りの記—生活記録運動と四日市公害』, 影書房.
- 四日市市役所広報広聴課(2017), 「特集 未来に豊かな環境を引き継ぐために—四日市公害裁判判決45周年—」, 『広報よっかいち』 No.1482, 6.
- 丹辺宣彦 他(2021), 「開発・公害の経験と産業都市の生活環境——三重県四日市市の地域イメージをめぐって——」, 『東海社会学会年報』 13,

103-117.

藤波匠(2010), 『地方都市再生論』, 日本経済新聞出版社.

堀越光信(2019), 「大入道”四日市に伝わる特異なからくり山車とその課題」

<https://www.isan-no-sekai.jp/report/6481> (검색일: 2024.10.30.)

三重県 教育委員会事務局 小中学校教育課(2010), 「第1章 郷土の文化」, 『三重の文化』, 三重県教育委員会.

四日市市役所広報マーケティング課(2019), 「特集 心に刻まれる夏~熱気と感動がまちをつつむ 大四日市まつり~」, 『広報よっかいち』 No.1528, 3.

吉見憲(2020), 「ゆるキャラの過激化に関する一考察」, 『社会学部論集』 70, 119-128.

❖ ABSTRACT

Local Regeneration and the  
Modern Use of Yokai Culture  
– Focusing on the Case of Yokkaichi City –

Kim, Kyounghe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case of Yokkaichi City, Mie Prefecture, which is seeking to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yokai culture, and was able to examine the following points.

First, Yokkaichi City has transformed from an image of an environmentally polluted city to an image of a city of cultural transmission. It is noteworthy that, while making efforts to improv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city has also created an image of a city of cultural transmission by using traditional culture festivals, a unique cultural resource of the region, to shed its negative image as a polluted area. In addition, there is a movement to remember the legacy of suffering in order to pass on a sustainable environment to future generations, rather than just putting the pollution problem behind them.

Secondly, it is making efforts to preserve and pass on the traditional culture with its uniqueness and distinctiveness in the region while using it as content for modern pop culture to attract young people. The Daiyokkaichi Festival, which has become a citizen festival, is a “invention of tradition” based on traditional culture but adapted to the modern era.

Third, the use of yokai culture in local revitalization is a notable feature. The yokai culture itself has the properties that allow for the

creation of various images and rich stories. The characters function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people,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expressed in a wonderful way through the use of the yokai theme. In addition, the media mix of cultural content using yokai characters is being attempted, which shows the diversity of stories and media conversion in Japanese culture.

Fourth, the use of yokai characters to revitalize the region is encouraging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ways. Yokkaichi's efforts can be seen in how they have led residents to think about how to create a festival and get them to participate.

Reg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underdeveloped and declining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disparities. This is the point where various approaches and solutions for the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such regions should be sought. I think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case of Yokkaichi City at a time when we need to think about what members should do for a sustainable region.

Keywords: regional revitalization, yokai culture, yurukyara, community renovation, yokkaichi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1

■ 게재확정일 : 2025. 02. 07